

정읍내장산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올시즌 2관왕 수성고 제압 "우리가 전국 최강"

순천제일고, 고교 배구 정상에 서다

춘계대회이여 2관왕 기염 임정식, 최우수선수 선정

순천제일고가 2023 정읍내장산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남자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월 춘계전국중고배구연맹 우승에 이어 올 시즌 2관왕이다.

순천제일고는 지난 21일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남고부 결승전에서 올해 태백산배와 전국중별배구선수권대회 우승팀 수원 수성고를 세트스코어 3대1(25-20 20-25 25-22 25-19)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제일고는 1세트 초반 내리 3점을 주며 흔들렸으나 단단한 블로킹과 강력한 스파이크로 역전에 성공하며 25-20으로 먼저 세트를 따냈다.

시소점전 끝에 2세트를 20-25로 내준 순천제일고는 3세트 초반부터 리드를 가져가며 25-22로 승리했다.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4세트에서는 강력한 스파이크와 속공 플레이로 상대를 25-19로 제압하며 고교 최강의 위상을 입증했다.

우승과 더불어 뛰어난 활약을 펼친 임정식(순천제일고 3번)은 최우수선수 상을 수상했고, 백수현(순천제일고



2023정읍내장산배 전국중·고 배구대회 남자고등부 정상 차지한 순천제일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2년)이 공격상, 최보민(순천제일고 3년)이 리베로상, 임태호(순천제일고 2년)가 레프트상, 정정은 코치가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남중 순천제일고 감독은 "서로 믿고 소통하며 좋은 경기력을 펼쳐 이리

한 성과를 거뒀다"며 "다음달 영광에서 열리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중·고 배구대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도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제일고 정승운(3년·미들

블로커)과 배준솔(2년·세터)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한국 남자19세이하 유스대표팀 훈련에 소집됐다. 대표팀은 오는 8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23 세계유스남자U19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박희중기자

김유홍 협회장·김창승 회장·박형택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문위원 위촉

김유홍 광주시생활무용협회장, 김창승 광주시펜싱협회장, 박형택 전 광주시바둑협회장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광주시체육회는 22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김유홍 광주시생활무용협회장, 김창승 광주시펜싱협회장, 박형택 전 광주시바둑협회장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김유홍 생활무용협회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방안과 연구·조사 등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생활체육위원으로, 김창승 펜싱협회장은 스포츠영양 사업 기본계획과 추천·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영양선정위원으로, 박형택 전 바둑협회장은 체육단체와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수립과 촉진 계획을 추진하는 지역 상생위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왼쪽)이 22일 김창승 펜싱협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종목단체 회장들이 중앙 무대에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조지아 대표팀 출신 베카 영입

베카 "헌신과 득점으로 빛고을 팬 환호 이끌어낼 것"



프로축구 광주 FC가 조지아 공격수 베카 미켈타제(사진)를 영입했다.

광주는 22일 "팀 공격을 책임질 조지아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 베카 미켈타제(25)를 영입했다"며 "베카는 조지아 연령별 대표팀(U-17, U-19, U-21)을 모두 거친 엘리트로 2020년 A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 2경기 출전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카는 연계 플레이와 공간 침투, 공격 위치 선정이 뛰어난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FC제스타포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베카는 FC디나모 트빌리시(조지아 1부), 아노스소시스FC(키프로스 1부), FK루빈카잔(러시아 1부), FK로트르 폴고그라드(러시아 1



부) 등 유럽 각지에서 컵 대회와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2021-2022 시즌 호주 A리그의 뉴캐슬 제츠로 팀을 옮긴 베카는 팀의 주포로서 맹활약, A리그 올스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2-2023시즌엔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6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베카는 "아시아 무대에 발을 내딛으며 자연스럽게 K리그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 중 1부리그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펼치는 광주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내가 할 일은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광주 팬들이 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EV SPACE'에서 색다른 경험하세요"

팬들과 소통·공감 '랜드마크' 기대감



프로 야구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 10년을 맞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CX(고객경험) 공간을 만들어 공개했다.

KIA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 팬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5층입구 앞 광장에 'EV 스페이스'(Expecting Victory Space)를 조성했다.

EV 스페이스는 대형 호걸이 조형물과 오늘의 라인업, 상설 공연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5층입구 앞에 높이 6.5m의 대형 호걸이 조형물(에어 별론)이 설치됐

다. KIA 타이거즈 응원봉(페이퍼 스틱스)인 '호동이'를 들고 응원하는 호걸이의 모습으로, 이색적인 공간 연출은 물론 팬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걸이 조형물은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이어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팬들은 물론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팬들에게 승리 기대감을 안길 당일 경기 선발 출전 선수들의 사진도 게시된다.

당일 경기의 선발 출전선수들이 확정되는 경기 1시간 전, 대형 호걸이 옆 오늘의 라인업 보드에 해당 선수들의 브로마이드가 게시된다.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5층입구 앞에 설치된 대형 호걸이 별론 포토존.

<KIA타이거즈 제공>

이와 함께 5번 출입구 계단을 좌석으로 활용한 상설 공연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KIA는 경기가 없는 비시즌과 원정 경기일을 활용해 지역 청년과 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V 스페이스는 23일 kt와의 경기 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KIA 타이거즈 구단은 "무엇보다 구장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 기간 동안 통제됐던 5층입구 앞 공간을 정비해 팬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EV 스페이스를 조성했다"면서 "EV 스페이스가 야구팬뿐만 아니라 지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김민재, 뮌헨행 앞두고 맨시티도 영입전 가세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나폴리) 영입전에 '유럽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가세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토는 "김민재를 둔 맨체스터 데비"라는 보도를 통해 맨시티도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민재의 뮌헨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날 스키아스포츠 독일판은 "뮌헨은 며칠 내에 김민재의 이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김민재는 바이에른에 가고 싶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광주시 선수단 해단식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2일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선수단은 지난달 16-19일 울산시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수영(안성빈·풍양고) 3관왕에 오르는데 이어 육상(김유은·신용중)과 조정(김명철·광주자연과학고)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총 45개 메달(금 9개, 은 16개, 동 20개)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학생체전에서 이런 영광의 순간은 광주 시민에게 큰 귀감이 됐다"며 "앞으로 학생 선수들이 매사 용기와 도전 정신을 지니길 바라며,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 등 각 기관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지난 21일 열린 '위더스계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개인전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장사인증서와 황소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희화, 임수정, 선채림 <대한씨름협회 제공>

구례군청 최희화, '무궁화장사'

선채림 매화장사...구례군청, 강릉단오장사씨름 단체전 우승

최희화(구례군청)가 위더스계약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여자부 무궁화장사(80kg 이하)에 올랐다.

최희화는 지난 21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 단오제 행사장 씨름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박민지(영동군청)를 2-1로 누르고 2년 만에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박민지에게 첫판을 내렸지만, 인다리와 뿌러치기로 연거푸 상대를 쓰러뜨렸다.

최희화가 무궁화장사 황소 트로피를 받은 건 개인 통산 7번째다.

매화급(60kg 이하) 결승에선 선채림(구례군청)이 양운서(영동군청)를 2-1로 제압했다.

그는 설날대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타이틀을 차지했다.

임수정(영동군청)은 국화급(70kg 이하) 결정전에서 엄하진(구례군청)을 2-1로 꺾고 개인 통산 2번째 국화장사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여자부 단체전에선 선채림, 엄하진, 김시우, 이세미, 최희화가 나선 구례군청이 거제시청을 3-1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연합뉴스